

2022년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2. 1. 26.(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30명
 - 회 장 : 임대기
 - 집행부 : (부회장) 최경열, 백옥자, 최경용, 윤여춘, 김동주, 김정봉
(이 사) 최인해, 김승일, 이진택
 - 대 의 원 : 이 식(서울), 이재홍(부산), 김명수(대구), 김영성(인천), 양대동(광주), 김명오(대전), 주영길(울산), 윤강원(세종), 김진원(경기), 최선근(강원), 엄광열(충북), 전용환(충남), 김영훈(전북), 김영래(전남), 이문석(경북), 유헌태(경남), 임관철(제주), 홍형표(중고), 김태진(실업)
 - 감 사 : 정우창(감사)
- 2021년 정기표창자 시상식
- 성원보고 및 개식통고 : 사회자
- 개회선언 : 임대기 회장
- 인사말 : 임대기 회장

대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 정말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육상계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 대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 우리 육상계는 여러 위기와 희망이 교차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침체되어 있던 우리 육상계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하지만 출전

했던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이 큰 성과 없이 대회를 마쳤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세 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실행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경쟁력 상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큰 국제 행사가 많습니다. 7월 미국 오레곤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가 연달아 있습니다. 4년 전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거두었던 성적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표의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우리 육상계가 크게 도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여러 방면에서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 육성이 큰 과제입니다. 예천육상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도자와 심판들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젊은 우수선수들을 적극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작년 연말 무렵부터 외부 단체들로부터 육상 우수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자들을 확보하고 육상에 대한 관심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맹에서는 대상선수들에 대한 명단작성은 완료했으며 저를 비롯한 여러 임원분들께서 후원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외부 단체들의 반응 역시 나쁘지 않고 우수선수들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불협'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상 저변확대입니다. 육상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여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활체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4대약 근절은 육상계 전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가슴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대의원분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 연맹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올 한해도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건심의

◆ 제 1 호 : 전차 총회 회의결과 보고의 건

사회자로부터 [전차 총회 회의결과 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접수함.

◆ 제 2 호 : 감사 보고의 건

대한육상연맹 전용환 행정감사 / 정우창 회계감사로부터 감사결과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접수함.

◆ 제 3 호 : 연맹정관 개정의 건

사회자로부터 [연맹정관 개정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개정할 것과 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과정 중 수정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연맹 사무처에 위임하여 수정하고 차기총회에 보고 하기로 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

◆ 제 4 호 : 2021년도 사업결과 승인 건

사회자로부터 [2021년도 사업결과 승인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 제 5 호 : 2021년도 결산 승인 건

사회자로부터 [2021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 제 6 호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사회자로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위원 선임권한을 연맹 회장께 위임함.

◆ 제 7 호 : 연맹 로고 변경의 건

사회자로부터 [연맹 로고 변경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김돈순 사무처장

이번 총회에서 승인하게 되더라도 향후에 새로운 로고 개발과정에 2~3개월 가량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인물 자료에 있는 로고는 초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기타 안건

◆ 마무리 말씀

임대기 회장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우선 체육정책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쿄올림픽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격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일본의 학교체육과 독립된 행정 처리 기구의 역할, 중국의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매우 끓고 안타깝지만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회로를 택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우회로가 생활체육발전을 통해 육상의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제일기획 컨설팅 결과와 여러 집행부 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머릿속에 맴 도는 것이 일본과 중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현실적으로 많은 벽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부터 집중하여 나아가고자 조그만 후원금이라도 선수들에게 지원하려고 제가 직접 뛰고 있습니다.

큰 목적이 달성이 안될 때 작은 것부터 해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 못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메모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테니 대한육상연맹을 믿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분들께서 연맹과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회 16:00

기록 : 김상우 대리